# 2022 송구영신
# 2023! 회복의 해가 열렸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학개 2: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 회복과 시작**

학개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분수령은 '고레스 칙령'(B.C. 538)이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였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욕망이 죄의 뿌리가 된다. 우상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형상화된 것이다. 그래서 우상이 존재하는 한 온전한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인간이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단계에 하나님의 결정은 '리셋'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진동시키시고 다시 리셋하신다(솔로몬이 7년에 걸쳐 지은 궁전이 완전히 파괴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 포로가 됨).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금, 은그릇이 약탈되어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졌다.

**2. 진동 후 회복의 사인 - 고레스 칙령**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망한 것 같지만 사실 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회복될 시점을 언약으로 인봉하셨다.

[예레미야 29: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이 차면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 본토로 돌아올 것에 대해 약속하셨다.

**'고레스 칙령'의 내용**

[에스라 1:1-4, 새번역]

1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2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3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4 잡혀 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너무나 놀라운 회복의 선포다. 2023년은 무너졌던 교회가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회복의 사인'**

무너진 사람이 있는가? 낙담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너짐에도 회복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만 알면 된다. 그리고 다시 돌이키면 된다. 때가 되면 출애굽의 시간처럼 하나님은 '회복의 문'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놀랍지 않은가?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뿐 아니라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법적으로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풀어 주신다. 더 나아가 그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 삶의 중심이 되었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공급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2023년 회복의 문을 선포하자. 하나님은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해 '고레스'를 일으키실 것이다.

**3. 성전을 회복하라**

회복의 시작이 무엇인가? 본토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 견고히 하는 것이다. 2023년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는가? 오늘 학개서는 그 질문을 하고 있다.

[학개 2:3]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회복의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 새번역)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만날 특별한 장소(하마콤)를 찾고 계신다. 구별된 장소를 찾고 계신다. 강도의 굴혈이 아닌, 사교 장소가 아닌, 내 소원 풀이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특별한 장소를 찾고 계신다. 오늘 우리에게 그 성전이 회복되어야 한다.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의 열망이다.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해야 한다.

**'회복의 때에 하나님은 힘과 용기를 주신다'**

[학개 2:4-5, 새번역] 4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5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회복의 프로젝트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지도자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주신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2023년은 하나님이 낙망한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실 것이다. 용기를 주실 것이다. 확신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4.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진동**

[학개 2:6-8] 6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뭍을 뒤흔들어 놓겠다.** 7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 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8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진동이 선포된다. 놀라운 사실은 회복의 때에 진동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진동의 법칙이다. 진동 뒤에 보화가 있다. 하나님이 진동시키실 때 놀라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이 진동의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진동 뒤에 하나님은 엄청난 보화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은, 금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이 말은 하나님의 회복은 추상적인 회복이 아니라 실제적인 회복이라는 것이다.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재정도 주실 것이다. 은사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실 것이다. 명심하라.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진동시키시는 분이다.

**5.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학개 2:9, 새번역]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 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학개 2: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복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 회복은 이전 것으로부터의 회복이다.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강건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보다 못하다면 회복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무너진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신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은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 찬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6. 땅의 회복**

신약에 와서 성전은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무너진 각 사람의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그 성전에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벧엘과 세겜,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실제적인 땅이 회복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땅의 회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은 추상적이지 않다. 실제적인 땅의 회복이다. 영역의 회복이다. (가정, 일터, 모든 영역, 빼앗긴 땅들을 찾아오는 해가 되어야 한다) 이제 찾아오는 것을 넘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임재의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 장소를 찾고 계신다. 2023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가 회복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7. 땅의 회복은 여호수아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